

#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문혁준(Hyukjun Moon)<sup>1)</sup>

## ABSTRACT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were examined in 448 college-educated mothers of kindergarten children. The mothers completed measures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temperament, an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Higher parenting self-efficacy was observed in mothers of daughters, older siblings, less emotional, more active, and more sociable children, and among mother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f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variables, guidance of socially appropriate language and behavior was the best predictor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기질(temperament), 양육참여도(father involvement).

## I. 서 론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변인이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아기의 자녀양육은 부

모에게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등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로 양육효능감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Bandura (1986)의 'self-efficacy이론'에 그 배경을 두고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몇몇 예를 보면, Dorsey와 그의 동료들(1999)은 아동 발달과 관련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Gross와 Rocissano (1988)는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 및 훈육에 효율

\* 본 연구는 200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on 420-743, Korea  
E-mail : mhyukj@unitel.co.kr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온정적, 반응적, 지지적, 일관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오고,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적인 부모행동은 유아의 분노, 공격성, 불순종, 낮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 등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Dekovic & Janssens, 1992)으로 제시되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진숙·한지현, 2004). 즉, 부모효능감은 권위적/민주적 부모역할수행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이혜승, 2003), 어머니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태도는 효율적이고(문혁준, 1999), 자녀에게 더 많이 충고하고 반응적이라는 것이다(Bogensneider, Small, & Tsay, 1997). 또한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강조하였으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율을 격려하는 행동이 빈번한(안지영·박성연, 2002) 반면 자신의 효능감을 낮게 평가하는 어머니는 통제적, 강압적, 처벌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아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Coleman & Karraker, 1997; Bugental, Bule & Crusococa, 1989) 등 낮은 효능감은 양육에 대한 무력감을 조성하여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유아의 인지적·정서적 자기효능감(전인옥·이경옥, 1999),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Donovan & Leavitt, 1989), 모-자녀 관계에 있어 상호작용의 질(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 유아의 사회적 능력(문태형, 2002)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존에 발표된 국내·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직장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문혁준, 1999),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전인옥·이경옥, 1999),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Coleman & Karraker,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안지영·박성연, 2002), 유치원생 어머니(문태형, 2002), 만3-5세 유아를 둔 어머니(한유미, 2003), 만5세 유아의 어머니(이진숙·한지현, 2004), 만4-6세 유아의 어머니(안선희·김선영, 2004), 저소득층 36개월 미만 영아의 어머니(서소정, 2004), 만4-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이승미·김희진, 2005), 문제행동을 지닌 2-8세 아동의 어머니(Sanders & Woolley, 2005) 등이 있다.

종합해 보면,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민감성, 온정, 반응성, 일관성과 관련이 있으며(Sanders & Woolley, 2005; Stifter & Bono, 1998), 이러한 부모의 특성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호해 주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높은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자신감, 학업 성적의 향상, 낮은 근심·걱정 및 우울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Holmbeck, Paikoff, & Brooks-Gunn, 1995) 등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 발달과 관계가 있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취업 유무 등이 거론되었으며,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육효능감도 높게 나타났으며(문혁준, 1999; 서소정, 2004),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은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이나 의사소통, 학습지도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이승미·김희진, 2005; 전인옥·이경옥, 1999). 반면에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에 있어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유무는 관계가 없고 어머니의 학력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한유미, 2003). 이외에도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 지각은 남편의 육아협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배우자나 이웃의 정서적 지지나 도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유미, 2003; 이승미·김희진, 2005). 특히, 배우자의 지지 즉 남편의 육아 협조는 다른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고 현대 사회 및 가정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형성 과정을 연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숙재, 1997). 또한, 어떤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이 높거나 낮은 것을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이나 양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를 자신보다 자녀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들도 있으며, 선행연구(서소정, 2004;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에서도 자녀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모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 관심사 내지 책임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형성 과정에 있어 아버지와 아동의 주요 변인인 양육 참여와 기질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양육효능감 연구에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밝혀진 결과는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10군데 유아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의 어머니 4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241명(53.8%), 여아가 207명(46.2%)이었으며, 연령은 4세 2명(0.4%), 5세 70명(15.6%), 6세 342명(76.3%), 7세 34명(7.6%)으로 평균연령은 5.91세(SD=.49)였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아가 83명(19.0%), 첫째아가 167명(37.3%), 둘째아가 169명(37.7%), 셋째아이 이하가 26명(5.8%)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38.65세(SD=3.76), 어머니가 35.07세(SD=3.53)였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기술직이 170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비취업)가 264명(65.2%)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55명(87.7%), 확대가족이 46명(11.4%)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총 100문항의 설문지로서, 일반적 문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이 취학전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연령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최형성(2001)이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아동용 EAS를 수정·보완한 한세영·박성연(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척도는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 6문항, 활동성 5문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b>어머니 양육효능감</b>	<b>37</b>	<b>.94</b>
전반적인 양육능력	11	.8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	.71
의사소통능력	9	.84
학습지도능력	6	.80
훈육능력	4	.66
<b>아동의 기질</b>	<b>20</b>	<b>.79</b>
정서성	6	.72
활동성	5	.78
사회성	9	.85
<b>아버지 양육참여도</b>	<b>29</b>	<b>.94</b>
여가활동	12	.90
생활지도	9	.89
가사활동	4	.85
인지적 성취지도	4	.71

항, 사회성 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질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최경순(1992)이 개발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각 하위 척도는 여가활동(12문항), 생활지도(9문항), 가사활동(4문항), 인지적 성취지도(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

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서울시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만 5세 대상 아동 74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아동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10 군데 유아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의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통해 2004년 9월과 10월에 배부되었으며, 회수율은 90%로 450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48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2>, 혼육능력에 있어서만 여아의 어머니(M : 15.82, SD : 1.82)가 남아의 어머니(M=15.45, SD : 1.75)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t = -2.15$ ,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남 아		여 아		t
	M	SD	M	SD	
전반적인 양육능력	38.26	5.37	39.03	5.89	-1.4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6.91	3.01	26.64	3.35	.907
의사소통능력	34.43	3.69	34.56	4.14	-.335
학습지도능력	22.23	3.00	22.28	3.48	-.162
혼육능력	15.45	1.75	15.82	1.82	-2.15*
양육효능감(전체)	137.29	14.19	138.32	16.41	-.710

\* $p < .05$

$p < .05$ ). 즉,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혼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3>, 양육효능감(전체)에 있어 둘째아 이하의 어머니(M=139.42, SD : 15.04)가 첫째아(외동아 포함)의 어머니(M : 136.48, SD : 15.3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t = -2.02$ ,  $p < .05$ ), 하위영역의 전반적인 양육능력( $t = -2.37$ ,  $p < .05$ ), 하위영역의 의사소통능력( $t = -2.25$ ,  $p < .05$ ), 혼육능력

<표 3>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첫째아 (외동아 포함)		둘째아 이하		t
	M	SD	M	SD	
전반적인 양육능력	38.06	5.65	39.34	5.52	-2.37*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6.64	3.06	26.97	3.30	-1.08
의사소통능력	34.13	3.98	34.96	3.75	-2.25*
학습지도능력	22.17	3.17	22.36	3.30	-.608
혼육능력	15.48	1.86	15.80	1.68	-2.00*
양육효능감(전체)	136.48	15.32	139.42	15.04	-2.02*

\* $p < .05$

( $t=-2.00, p<.05$ )에 있어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아 이하의 어머니가 첫째아(외동아 포함)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효능감(전체),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양육효능감(전체)과 아동의 정서성( $r=-.18, p<.001$ ), 활동성( $r=.20, p<.001$ ), 사회성( $r=.20,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 $r=-.20 \sim r=.21$ )을 보였다. 즉 아동의 정서성이 낮을수록,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전반적인 양육능력	-.20***	.18***	.17***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4**	.19***	.19***
의사소통능력	-.15**	.17***	.17***
학습지도능력	-.13**	.19***	.21***
훈육능력	-.13**	.10*	.11*
양육효능감(전체)	-.18***	.20***	.20***

\* $p<.05$  \*\* $p<.01$  \*\*\* $p<.001$

### 4.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5>,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취업 유		취업 무		t
	M	SD	M	SD	
전반적인 양육능력	38.90	5.91	38.49	5.43	.72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6.51	3.52	26.97	2.92	-1.41
의사소통능력	34.67	4.17	34.41	3.73	.677
학습지도능력	21.94	3.66	22.47	2.89	-1.58
훈육능력	15.47	1.93	15.71	1.70	-1.36
양육효능감(전체)	137.49	16.63	138.05	14.30	-.359

### 5.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어머니의 연령과 의사소통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r=.11, p<.05$ )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6> 어머니의 연령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연령
전반적인 양육능력	.0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06
의사소통능력	.11*
학습지도능력	.01
훈육능력	.02
양육효능감(전체)	.08

\* $p<.05$

### 6.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전체)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전체)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 $r=.26, p<.001$ )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가사활동양육참여도(전반적인 양육

〈표 7〉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여가활동 양육참여도	생활지도 양육참여도	가사활동 양육참여도	인지적 성취 양육참여도	양육참여도 (전 체)
전반적인 양육능력	.20***	.28***	.09	.22***	.24***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9***	.26***	-.02	.13**	.19***
의사소통능력	.17***	.23***	.11*	.18***	.21***
학습지도능력	.26***	.28***	.06	.22***	.27***
훈육능력	.19***	.23***	.06	.13**	.20***
양육효능감(전체)	.23***	.30***	.08	.21***	.26***

\* $p < .05$  \*\* $p < .01$  \*\*\* $p < .001$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를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상관( $r = .11 \sim .28, p < .001$ )을 보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양육효능감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별( $\beta = .10, p < .05$ ),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beta = -.15, p < .001$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 = .24, p < .001$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전반적인 양육능력의 1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beta = -.11, p < .05$ )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 = .27, p < .001$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에 의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1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beta = -.11, p < .05$ )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표 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1	2	3	4	5	6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아동						
성별 <sup>1</sup>	.10*	-.03	.03	.13**	.05	.07
연령	-.01	-.01	-.04	.02	-.05	-.03
출생순위	.08	-.02	.02	.08	-.02	.04
기질						
정서성	-.15***	-.11*	-.11*	-.10*	-.09	-.14**
활동성	.10	.08	.08	.02	.07	.09
사회성	.06	.10	.07	.05	.13*	.09
어머니						
연령	-.01	.05	.07	-.03	-.01	.03
취업여부 <sup>2</sup>	-.02	.07	-.02	.08	.09*	.03
아버지 양육참여도						
여가활동	-.04	.02	-.04	.09	.12	.02
생활지도	.24***	.27***	.19*	.20*	.15*	.25***
가사활동	-.05	-.09	.01	-.02	-.07	-.06
인지적성취지도	.08	-.02	.04	-.05	.07	.05
R <sup>2</sup>	.15	.13	.10	.10	.15	.15
F	6.03***	5.10***	3.74***	3.86***	5.92***	6.25***

<sup>1</sup>성별 0=남아, 1=여아

<sup>2</sup>취업유무 0=유, 1=무

\* $p < .05$  \*\*\* $p < .001$

1. 전반적인 양육능력,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학습지도능력, 5. 훈육능력 6. 양육효능감(전체)

생활지도( $\beta = .19, p < .05$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에 의해 의사소통능력

의 10%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별( $\beta=.13$ ,  $p<.01$ ), 기질 중 정서성( $\beta=-.10$ ,  $p<.05$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20$ ,  $p<.05$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학습지도능력의 10%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능력에 있어서는 아동의 기질 중 사회성( $\beta=.13$ ,  $p<.05$ ), 어머니의 취업 유무( $\beta=.09$ ,  $p<.05$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15$ ,  $p<.05$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어머니 학습지도능력의 1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전체에 있어서는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beta=-.14$ ,  $p<.01$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25$ ,  $p<.001$ )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에 의해 어머니 양육효능감 전체의 1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부모의 양육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최형성·정옥분, 2000),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부모의 인지와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되고 있다(Teti & Gelfand, 199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사회생태학적 맥락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에 비해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

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Ohan, Leung, & Johnston,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여아에 비해 높은 남아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 수준, 낮은 친사회적 행동 및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정현희·오미경, 2000; 안선희·김선영, 2004) 등 아동의 성차에 따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둘째아 이하의 어머니가 외동아를 포함한 첫째아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Coleman과 Karraker(2000)의 연구에서 아동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어머니가 부모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직접 양육경험을 통한 학습이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기질 중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정서성이 낮을수록,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Coleman과 Karraker(2000)의 연구에서 아동이 덜 정서적이고 더 사회적일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안선희·김선영(2004)과 한유미(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 유무는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나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원과 대인관계가 생기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접할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면, Crockenberg (1987)는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의 내적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으며, 백종화·박성연(2002)의 연구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편이 부모로서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한유미, 2003, 신숙재, 1997)와 일치하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들은 일상적인 보살핌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단계로서 부부간에 애정과 친밀감이 있고 상호협조하는 관계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난 문혁준(2003)의 결과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정순(2003a)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능동적인 참여 및 정서적 지지는 부부간 연대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연대감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

들이 자녀양육에 더욱 협조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장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유아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예절 지도, 언행교정, 일상생활습관 형성 등에 도움을 주는 생활지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 문제는 부부공동의 관심이 되었고 아버지를 단순한 어머니의 보조자나 자녀의 놀이상대로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아버지상에 대한 가정내 기대가 높아졌음을 내포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상의 결과를 가족학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Belsky & Isabella, 1985),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집단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도 원만하고(이정순, 2003b),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서 부모역할 기술이 좋아지게 하는 것(Belsky & Vondra, 1989)으로 보고되는 등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표집지역분포가 한정되어 있으며, 일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설문지 작성당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의 매개 변수인 양육효능감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으며,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이상의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_\_\_\_\_(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24(5), 59-75.
- 백종화 · 박성연(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희 ·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지영 ·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이승미 · 김희진(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 이정순(2003a).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순(2003b).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진숙 ·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 : 재미동포 한인 1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57-71.
- 전인옥 ·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정현희 · 오미경(2000).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6), 171-183.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 정옥분(2000).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한세영 ·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4), 245-259.
- 한유미(200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Belsky, J., & Isabella, R.(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lsky, J., & Vondra, J.(1989). Lessons from child abuse :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D. Cicchetti & V. Calson(Eds.), *Child Maltreatment :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gensneider, K., Small, S. A., & Tsay, J. C.(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45-362.
- Bugental, D. B., Bule, J., & Crusococa, M.(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

-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5-539.
- Bugental, D. B., & Cortez, V.(1988). Physiological reactivity to responsive and unresponsive children-as modified by perceived control. *Child Development*, 59, 686-693.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_\_\_\_\_.(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 age children :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rockenberg, S.(1987).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Dekovic, M., & Janssens, J. M.(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onovan, W. L., & Leavitt, L. A.(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 efficacy of HIV 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95-305.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3), 207-215.
- Gross, D., & Rocissano, L.(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 Its measurement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Nurse Practitioner*, 13, 19-29.
- Holmbeck, G. N.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5).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 Vol 1. Children and Parenting*(pp. 91-118).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Ohan, J. L., Leung, D. W., & Johnston, C.(2000).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 Evidence of a stable factor structure and valid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2, 251-261.
- Rodrique, J. R., Geffken, G. R., Clark, I. E., Hunt, F., & Fishel, P. (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 Sanders, M. R., & Woolley, M.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 65-73.
- Stifter, C. A., & Bono, M. A.(1998). The effect of infant colic on maternal self-perceptions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4, 339-351.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ucker, S., Gross, D., Fogg, L., Delaney, K., & Lapporte, R.(1998). The long-term efficacy of a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tervention for families with 2-year-old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1, 199-210.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9월 15일 채택